

기둥을 안솔림 시킬 境遇 기둥의 中立軸은 垂直線上으로부터 角度를 갖게 된다. 礎石이 정다듬된 一水平面上의 石材라면 角度를 가진 기둥을 받기는 어려운 일이다. 勿論 定礎後에 기둥뿌리를 傾斜지게 마음길 하여 定柱할 수는 있겠지만 上部荷重을 垂直으로 地盤에 傳達할 수는 없다. 故로 다듬질된 礎石을 약간 傾斜시키고 그 위에 定礎하였으리라 生覺된다. 柱材의 마련이 困難하고 길고 얇은 기둥을 配列시키기 爲하여서는 不可避하게 덤벙柱礎를 使用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겨우 一~五寸 程度の 크기차라면 疎忽히 덤벙柱礎를 使用했ellig 없었다고 본다. 그런 點들을 미루어 볼때 오금집에서의 덤벙柱礎 使用이 必然의인 것이 아닌 가 한다.

以上 列記外에도 여러가지 問題點들이 오금집에 內包되었을 것이 고재미 있는 事實들이 있을 것이나 뒤로 미루고 簡單한 紹介로서 그치려 한다.

資料

康津 沙堂里出土 青磁象嵌發願文片

崔 淳 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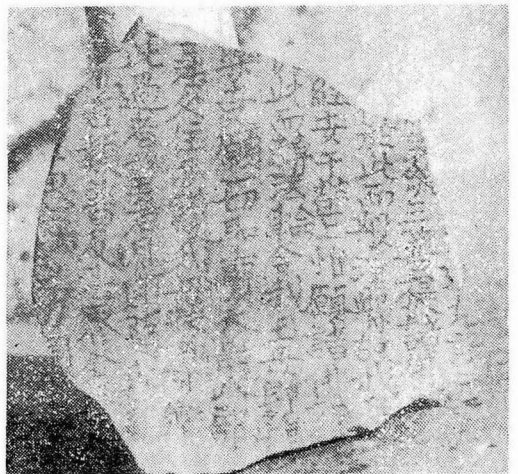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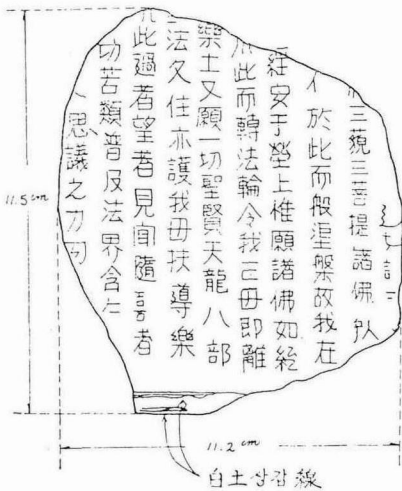
高麗陶磁器中에 佛敎的인 發願文을 刻銘한 例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다만 洪武二十四年(一三九二), 즉 李成桂가 王位에 오르기 前年에 아직 이루어지 못한 그의 大望을 은근히 佛陀에 誓願한 發願文을 刻銘한 白磁의 例(註一)가 있었지만 이것은 粗製의 큰 白磁砂鉢에 陰刻한 高麗亡國直前의 것이었다. 여기에 草하는 이 青磁象嵌發願文片에 關한 一文은 지난봄(一九六五) 우연히 美國人 夫人이 찾아와서 그가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窯址들을 踏查했을 때 沙堂里의 어린 少年에게서 사왔노라는 青磁象嵌 斷片에 關한 것이다. 이 破片은 青磁陶板에 黑象嵌으로 가득히 銘文을 채넣은 높이 一·五cm 폭 一·二cm 두께 一·二cm 内外의 보기로 문 銘象嵌片이었는데 釉質로 보나 字體로 보나 十一, 三世紀를

第六卷 第十一號 通卷 六十三·六十四號

더 내려오지 않을 早期의 青磁象嵌이라고 생각된다. 그 銘文의 內容은 亡母의 冥福이며 이 斷片은 原來의 完形陶板의 中下位의 部分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白象嵌의 等行雙線이 이 斷片의 下端에 남겨진 것으로서 下端境界를 表示하고 있으며 現在 남아있는 銘文은 十行八十六字이다. 그 全文은 다음 挿圖와 같다.

이 陶板이 普通 墓誌銘陶板類와 다른 點은 背面에는 施釉를 하지 않았고 또 이 背面마무리에는 손자욱으로 이루어진 큰 心圓이 동글게 남아 있는 點이다. 이 心圓에는 손끝으로 마무리된 손가락 자욱이 四個所가 남아 있는데 이 손자욱에는 역역한 指紋이 남아 있어서 可愛로울다.

이 背面素地의 發色이 짙은 黃土色을 내고 있는 것은 이 陶片이 完全還元燒成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요 따라서 表面의 釉調도 淸雅한 發色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釉裂이 거의 없고 釉澤이 온전한 점은 早期青磁



釉의特色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陶片에 表示한 筆者의 關心을 알아 차린 陶片의 所有者 孟夫人은 珍차 이것을 國立博物館에 寄贈하겠다고 約束했고 그는 그 약속대로 數週後에 다시 와서 이 斷片을 筆者의 손에 다시 넘겨 줌으로써 지금은 國立博物館의 所藏으로 되어있다.

註一、一九三二年十月六日 江原道淮陽郡楊面 長淵里 金剛山月出峯에서 防火線作業中인 人夫들에 依하여 一石函속에서 一聯의 舍利具와 함께 發見되어 國立博物館에 收藏되었다.

高麗青銅如來坐像

黃 壽 永

距今 十一年前 江原道旌善郡新東面鳥洞四里(寺谷) 옛질터에서(地下約五尺) 現夢出土되었다고 전한다(現在 龍雲寺住持 柳景善) 靑銅製 金箔痕跡이 남아있고 內部에 鐵心과 土製鑄范이 그대로 남아 있다. 保存良好하며 背面下部가 缺失되었을 뿐이다.

螺髮이며 白毫孔이 남았고 相好 豐滿 兩耳가 길고 三道가 있다. 通肩으로 두



어깨에 袈裟 장엄이 있으며 兩臂에 各二行의 梵字文帶가 보인다. 胸部中央에 卍字가 陽刻되어 있는 것도 注目된다. 掌帶가 一直線으로 腹部에 새겨지고 그곳에 一箇瓔珞이 垂下되었다. 結跏趺坐로서 右足만이 膝上에 놓이고 法衣끝은 中央에 表現되었으며 兩膝끝에는 螺旋文이 새겨졌다.

兩手中 左手는 胸前에 들어 第一、三指를 接近시켰으며 右手는 腹部에서 五指를 펴고 있다. 印相에서 像名이 阿彌陀如來로 推定된다. 그리고 相好 衣紋과 鑄造에서 高麗中代 西紀 十三、四世紀의 地方作品으로 보인다. 洗鍊된 彫法은 아 니나 姿勢의 均齊함과 壯嚴에서 當代 佳作으로 보겠으며 出土地點의 分明함과 더 불어 高麗靑銅佛像資料의 하나가 될만하다. 坐高 45cm 兩膝幅 28cm 肩幅 19cm 全面에 靑繡가 덮여 있다. 八月二十二日 柳住持와 陳政熙師가 서울東大로 移安)

海印寺經板庫(南閣)上樑文

孟 仁 在

天啓二年壬戌七月十八日「大藏殿上樑」成造大施主「體天興運俊德弘功 隆奉顯保」懋芝重熙神聖英肅欽文仁武叙「倫立紀明誠光烈睿哲莊毅章」憲 順靖建義守正彰道崇業」主上殿下 壽萬歲「成造大施主」章烈敬徽貞聖淑顯 慎「靜順」王妃殿下 壽萬歲「王世子邸壽齊年」世子嬪朴氏邸下 壽千秋「粹 嬪許氏乙未生」貴人洪氏辛丑生「貴人尹氏壬寅生」昭儀權氏癸卯生「淑儀 元氏甲辰生」淑容任氏乙未生「淑容鄭氏丙申生」翁主李氏乙未生「李氏戊 午生」尙宮崔氏「乙巳生」尙宮崔氏丁未生「尙宮李氏庚戌生」尙宮金氏甲 辰生「尙宮韓氏丁巳生」尙宮趙氏癸丑生「尙宮金氏丙寅生」尙宮李氏丙子 生「尙宮崔氏癸未生」尙宮李氏壬午生「尙宮劉氏癸未生」尙宮金氏甲申生「 權氏乙酉生」金氏己丑生「方氏丙戌生」尙宮金氏庚申生「以上中央間宗道 里底面墨書」尙宮比丘尼朴氏「比丘尼道明、比丘尼伊行」比丘尼戒明、比 丘尼□聰「比丘尼空安比丘尼惠全」比丘尼戒一、比丘尼大珠「比丘尼性慧、 比丘尼敬雲」比丘尼□寶、比丘尼智岑「比丘尼道應、張氏德□」高氏良玉、 金氏世玉「車氏必福、孫氏德只」車氏、李氏□介□「金广比介」山中大